

■ 그림 여행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치스코**

(Saint Francis Preaching to the Birds c. 1295-1300)

쵸토 디 본도네 (Giotto di Bondone 1267-1337)

(목판에 금박과 템페라 163x313cm 루브르 박물관)

“사랑하는 새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 많습니다. 그대들에게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며 두세 겹의 옷까지 주셨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먹이시고, 마실 수 있는 강물과 샘물을 주셨으며 몸을 피할 수 있는 산과 계곡, 그리고 동지를 만들 수 있는 높은 나무들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그대들이 베를 짜거나 바느질을 못하므로 그대들과 그대들의 새끼들에게 옷까지 입혀 주셨

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며 그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씨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새들에게 설교를 하다니, 미쳤군, 미쳤어’ 하고 옆에 서 있는 수도사의 못마땅한 표정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못 할 일이라고 비난하는 듯하다. 그러나 모여든 새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성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 뒤에 서 있는 나무도 고개를 숙여 듣고 있다. 금색의 찬란한 배경 속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까지 모든 것이 자연 속에 녹아 들어 신을 찬양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쵸토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르네상스 회화의 선구자였다.

시골에서 양을 치다가 바위 위에 양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스승 치마부에게 제자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쵸토는 서양 미술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화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중세의 틀에 박힌 비잔틴 양식의 전통그림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그리기 시작했다. 관념이 아닌 관찰에 근거해 그림을 그렸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감정과 표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르네상스 회화의 문을 열었다.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성자의 행적을 그린 동화같은 그림이지만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성자가 행한 기적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한다. 우아한 그림의 공간 속에서 중세의 겸손한 화가는 하나님의 기적은 저 멀리 피안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다고 가만히 말해 주는 듯하다.

《김동백》

■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니콜로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년 10월 27일 ~ 1840년 5월 27일)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가, 작곡가이다. 그는 자신의 곡을 제대로 연주할 사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섯 곡밖에 작곡을 하지 않았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귀신도 나와 춤을 추었다고 할만큼 기교가 뛰어났다 한다. 그는 4옥타브에 걸치는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으며 음을 하나하나 끌어 연주하는 스타카토 주법, 현을 손끝으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 주법, 현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서 휘바람 같은 소리를 내는 하모닉스, 이중 트릴 (떨꾸밈음) 등의 화려한 연주 기법을 만들어 냈다. 또한 파가니니는 G현 하나로만 연주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괴소문이 바로 거기서 비롯되었다.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탁월한 실력을 얻었으며, 바이올린 활을 움직이는 것은 그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파가니니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생겨났다. 시인 하이네는 공연 중에 파가니니의 발치에 ‘사슬’이 감겨 있고, ‘악마’가 나타나 연주를 도왔다고 단언했다.

파가니니는 사망 후에 고향인 제노바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는데,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교회 측의 반대로 36년이 지난 뒤에야 그의 유언대로 제노바의 교회 묘지에 정식으로 묻힐 수 있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evergreenschool.com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714.670.9687